

호남폭설 피해지역에 자비를



지난해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 이재민들에게 불교계가 작은 정성을 보태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가장 성의를 보였는데 '사랑의 쌀 나눔운동'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는 인덕노인복지회관,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전문요양원 호암마을,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등 인덕원 산하 11개 시설이 모두 참여했다. 현재 목표는 5천kg의 쌀을 모으는 것. 실시일만 모은 쌀은 5천 트

럭에 가득 실려 1월 25일 호남 폭설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29일 열렸던 4대 종교 성직자 문화공연 '오색콘서트'에서 모인 성금 역시 1월 25일 호남폭설 피해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와 함께 개최한 '이웃과 함께하는 4개 종단 성직자 문화공연'에서 모인 성금 5백만원을 KBS를 통해 1월 25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호남지역 폭설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작년 12월 28일 MBC에 1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전국

교구본사에 공문을 하달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교구 차원의 자원봉사 및 성금 전달, 방문격려 등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장성 백양사, 고창 선운사 등 호남지역 교구본사에 대해서는 말사피해 현황을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11교구본사 불국사도 사중 스님과 자원봉사단, 성립문화재단 연구원, 16개의 신행단체 등이 참여해 2천5백만원을 모금했다.

하지만 이번 폭설로 인해 재산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먹구구식 수준

사랑의 쌀·성금 모금 등 온정 밀물 교계 조직적인 지원활동 이어져야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대적인 모금을 통해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스나미·카트리나·파키스탄 지진피해 성금구호회는 달리, 현재 불교계 종단 내에 호남폭설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재해기금창구는 한 곳도 개설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체계적인 지원책 또한 마련돼 있지 않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재해지역에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지난해 긴급구호봉사단을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구호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이번 폭설피해현장에 봉사단을 투입하지 못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 사찰 역시

피해 농가와 지역민들을 위해 조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마관가지다.

이번 폭설로 최대의 피해를 입은 나주, 담양, 장성 등지에 30개의 말사를 소유하고 있는 백양사와 다른 교구본사들은 구호활동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각 사찰의 자원봉사단 활동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각종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단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의료진, 현장지원봉사자, 구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구호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나와 찬불동요 108곡 엄선... 초·중·고급 3권

좋은벗 풍경소리(총재 지현)가 지난 10년간 발표한 찬불동요에서 엄선한 108곡을 '풍경소리 피아노 반주곡집 I III'으로 발표했다. 개인이 사비를 털어 교본을 만든 적은 있으나 여러 명의 작곡자 편곡 등이 어우러진 피아노 반주곡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피아노 반주곡집 세 권은 초·중·고급으로 나뉜다. 1권은 바이엘, 2권은 체르니 100번, 3권은 체르니 30-40번 수준에 맞도록 구성했다. 피아노 연습의 교육적인 측면과 단계별 학습을 위해 전문음악 편찬위원의 자문을 구하는 등 교재로의 완성도를 높였는데 주목할 것이다. 이런 노력의 결과 이번 반주곡집은 교

육기관이나 일선 음악학원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짜임새 있게 편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꾸벅의 이병덕 대표는 "이번 반주곡집은 법보시한다는 생각으로 보다 나은 품질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악보집의 가격도 대폭 낮춰 3권 한 질에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현 스님은 "새책 불자들이 이 악보집으로 피아노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에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축하했다. 피아노반주곡집은 전국 각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 (02)723-9836

김지연 기자

교회서 구청행사 '불교계 반발'

종평위 시정요구...부평구 "내년엔 바꾸겠다"

인천 부평구청이 1월 20일 개최 예정인 '2006 신년음악회'를 특정 종교시설에서 개최하기로 하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개신교 교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 입장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1월 12일 부평구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종교평화위는 부평구청이 시정하

지 않을 경우 종교적 중립 위반과 특정 종교편향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역 불교계 스님들은 1월 7일 부평구청을 방문, 종교편향 행위 중단과 신년음악회 장소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청측은 "내년부터 구내 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하겠다"며 "교회에서 개최하되, 선교 관련 행위는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지율스님 의학적으로 위중"

일산불교병원 "위급시 인위적 개입"

1월 5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한 지율 스님이 "의학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측은 1월 13일 "전해질 검사와 흉파·간 기능, 빈혈 등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율 스님은 비타미인과 미세혈 섭취가 시급하며 계속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율 스님은 아직까지 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고, 간단한 의사표현도 가능하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석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의무원장은 "지율 스님의 상태가 위급할 경우 병원은 인위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라며 "절대로 스님이 입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철도시설공단

측이 "공동조사 결과 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예측발표해 공정성 시비로 조사가 중단됐던 천성산 공동조사 마무리작업이 곧 재개될 전망이다.

고속철 천성산 관동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천성산 대책위)측 사재적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철도시설공단이 공식 사과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고 조사를 재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며 "조만간 천성산 대책위측과 철도시설공단측 조사위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사과를 수용하는 한편, 조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세법 모르는 종교단체 많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받아야 면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월 10일 종교단체 가운데 세법을 몰라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으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충처리위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조직·운영규정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돼 법인과 동일한 세법 적용을 받는다"며 "이런 경우 고유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제기본법, 소득세법상 법인이 아닌 거주자로 분류돼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

고충처리위 윤성용 재정세무팀장은 "세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종교단체(비영리단체 포함)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절차를 밟을 것"을 당부했다. (02)360-2793

박봉영 기자

노인복지·여성불교 힘쓴다

조계종 포교사단 4대 단장에 양성홍씨

조계종 포교사단이 제4대 단장에 양성홍(59·사진) 포교사를 선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재정비에 들어갔다.



포교사단은 1월 5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양성홍씨를 단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4대 단장으로 선출된 이육용 포교사는 임기전인 12월 31일 일신상의 이유로 단장직을 사퇴

했다. 포교사단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이타행을 위한 복지포교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화 포교 확대(포교) △포교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간 마련과 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 △포교역량강화와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전문포교분야 확대교육) △지역별 단위사업 지도 등을 내놓았다.

특히 양 단장은 "노인복지사업과 여성불교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 단장은 지역 사찰과 연계한 지역사회복지와

개호복지(노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복지사업)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머니 불교가 살아야 청소년 포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성포교사 결집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양 단장은 (주)대영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며 1998년 포교사 품수를 했다. 또 포교사단 부단장과 제3대 단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8일 대전 서구노인복지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포교사 대학원을 통해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포교사가 돼야 한다"며 "각 지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도와 화합 단결하는 포교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산 케이블카 현장검증

2월6일 실시...16일 2차 심리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져본 신청에 대한 현장 검증이 2월 6일 실시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최인석)는 1월 10일 조계종 용화사가 통영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중지 가져본 신청'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2월 6일 오후 2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과 용화사, 미래사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용화사 부지 상공과 상부, 하부역사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중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미래사와 용화사를 차례로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용화사측이 제기한 현장검증과 확실한 경제 구분을 위한 사찰 소유 토지측량, 증인 심문

등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통영시측이 신청한 '토지수용절차 사실조회'도 경남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통영지원은 2월 16일 2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청교련 시각장애인용 점자도서 15종 등 제작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올해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제작 및 배포에 나섰다.

93년부터 점자도서 보급사업을 진행해온 청소년연합회는 주로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시각장애인 학교와 각종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지정 배포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배포되는 도서목록에는 점자도서 15종, 전자도서 2종, 녹음도서 테이프 5종, 녹음도서 CD 5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은희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품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계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원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즐거우며 수업을 익히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사집과·사교과·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익히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